

수 신 각 언론사 복지 담당,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취재협조]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개최
날 짜 2019.3.11.(총 4쪽)

[취재협조]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개최

3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1. 3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윤소하·김상희·기동민·김광수·김종민·김종훈·송옥주·정춘숙·최인호,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 남인순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 주관합니다.
2. 지난해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고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과거 1998년, 2007년 연이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정작 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된 채,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입니다.

4. 이제 다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직장, 지역),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모여 ①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1. 집담회 프로그램

붙임2. 집담회 포스터. 끝.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p>사전행사 (10:00~10:10)</p>	<p>인사말 및 축사</p>
<p>사회</p>	<p>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p>
<p>주제 영상 (10:10~10:20)</p>	<p>1.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3.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p>
<p>패널 발언 (10:20~11:40)</p>	<p>[발언 1] 당사자 패널(60분)</p> <p>- 김서희(직장가입자), 김동규(지역가입자), 진윤근(수급자), 김병준(청년), 정초원(여성), 조행운(노인), 전안진(특수고용노동자), 정진권(비정규직노동자), 김수현(국민연금공단 노동자)</p>
	<p>[발언 2] 전문가 패널(10분)</p> <p>- 이은주 박사 (사회복지학) - 민기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p>
	<p>[발언 3] 정책 관계자 패널(10분)</p> <p>- 이스란 연금정책과장(보건복지부) - 원종현 부원장(국민연금연구원)</p>
<p>마무리 (11:40~12:00)</p>	<p>전체토론 및 맺음말</p>

국민집담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주제 ■

1.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3.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패널 | 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남인순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의원 윤소하, 김상희, 기동민, 김광수, 김종민, 김종훈, 송옥주, 정춘숙, 최인호